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이명박 정부의 농정철학과 과제 : ‘농민 스스로 길 찾기’

이명박 대통령은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한농연이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 농정토론회’에서도,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농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민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도 농민 스스로 찾으라는 뜻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원론적으로 보면, “농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당선인의 말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최저 생활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어도,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농정의 결과를 보아도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구나 한-미 FTA가 발효되고, 한-EU,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 농민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체급 제한이 없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영세한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길은 명백하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은 물론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하나의 초유기체처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긴밀한 협력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민만 빼고!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농민이 가장 현명하게, 가장 앞장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농민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농민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 해 내야 할 과제를 요약하면,

① 농민 각자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최고의 기술을 습득하여 최고의 농산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 농외소득 등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② 보다 큰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로 뭉쳐야 한다.

- 농산물의 제값을 받고, 가공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 필요한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 지역별로, 품목별로 뭉치되, 필요할 때는 전국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③ 농업과 농민을 위해 국민이 '밀어 준' 조직과 재원을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책임의식 내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다양한 현장 사정과 당사자인 '농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농업회의소 설립 문제)
-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당사자인 농민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기관단체의 운영혁신 문제)
- 농협을 진정한 '농민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농협혁신 문제)

④ 나를 대신하여 일해 줄 전문가와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

- 농민은 자기 생업에 바쁜 사람이다. 상당한 회비를 내더라도 유능한 전문가와 조직을 확보하여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 비전과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선출해야 한다.

⑤ '농민의 뜻'에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기구와 의사결정 절차를 가져야 한다(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문제)

- 지역, 품목, 계층, 그리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농민의 뜻'을 하나로 수렴해 내는 지혜와 민주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농민지도자가 해야 할 일

- 농업을 2·3차 산업화하고, 농민 스스로 잘사는 길을 찾기 위해 농민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한없이 많고 한없이 어렵다. 이렇게 어렵고 많은 일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그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할 것인가?
- 새 정부, 새 장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현장의 농민이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엔 희망이 없다.
-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는 한농연 지도자 여러분들이 가지는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결속의 정도에 달려있다!

- 세상의 변화를 알고, 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
-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유통가공의 부가가치를 차지 하기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며, 정책에 농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 지역, 품목, 계층, 그리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농민의 뜻'을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가져야 한다.
- 나를 대신하여 일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

한농연 지도자가 해야 할 일

- 1)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 개방 시대의 특징
 - 농정 실패의 냉정한 진단
 - 새 정부의 철학

- 2)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 지옥 : 희망이 끊어진 곳
 -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단지 힘들 뿐이다.
 - 우리 농업의 가능성

- 3)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 선동가이다.

- 4) 다 함께 실천하자며 앞장서 나가야
 - 공부하고
 - 협동하는 것 → 시장에 대응, 정부에 대응



농업·농촌·농민문제 - 누가 책임지고 풀어갈 것인가?

- '21세기 우리 농업의 희망, 한농연' 이 나서지 않으면, '우울한' 농민 신세 면하기 어려울 것!
 -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 누구보다 크고, 단단하게 협동하고
 - 모범을 보이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는 한농연 지도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달렸다.